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프랑스 금융시장 불안 조짐

-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재강등을 시사하는 가운데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유럽의 재정·금융 위기가 프랑스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.
 - Moody's는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Aa1에서 5단계 아래인 정크수준으로 강등시킬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, S&P·Moody's·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다시 강등시킬 계획을 발표함.
 - 또한 무디스는 포르투갈의 A1 장기국채와 프라임 단기 국채의 신용등급을 2단계 아래 수준으로 강등할 계획을 밝힘.
 - 블룸버그는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의 최고 신용등급 'AAA'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도함.
- 프랑스의 국가 부도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디폴트스왑(CDS)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로 뛰어오르고 국채 수익률도 최근 한 달 사이 빠르게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급속히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임.
 -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의 CDS 프리미엄은 20일 현재 5년물과 10년물이 각각 1.0648%포인트와 1.2104%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하였고, 재정 안정성을 보여주는 국채 수익률도 10년물 기준으로 3.32%를 기록해 한 달 전에 비해 0.26%포인트나 상승함.
 - 스페인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스페인에 대한 대출 규모가 큰 프랑스가 불안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과 재정적자나 경제성장 측면에서 '프랑스가 스페인 포르투갈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'는 평가가 대두됨.
 -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(GDP) 대비 8.0%에 달해 스페인의 9.3%보다는 낮지만 포르투갈 7.3%보다는 높으며 정부부채는 GDP 대비 84.2%까지 치솟아 스페인과 포르투갈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임.
 - 부채를 줄이려면 긴축정책 외에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하지만 당분간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1%를 겨우 넘길 것으로 전망됨.

(Financial Times 12/21, Bloomberg 12/21, WSJ 12/22)